Global Investment Report 제 09-1 호

인도 투자진출 유의사항 10계명

CONTENTS

Ⅰ.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 1

Ⅱ. 한-인도 경제교류 동향 | 13

Ⅲ. 인도 투자진출 유의사항 10계명 | 22

머 리 말

광활한 국토, 풍부하고 우수한 인적자원, 안정적 정치체제를 갖추고 연간 8% 이상의 고도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인도가 Post-CHINA 투자 유망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인구수 11.4억 명으로 세계 총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인도는 최근 신흥 소비계층의 부상과 함께 내수시장 잠재력이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투자자를 유혹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구매력을 갖춘 중산 소비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우리 기업이 인도시장을 중시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세계 경제에서 친디아(CHINDIA), 브릭스(BRICs)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잘 나가던 인도경제도 최근 들어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여파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서비스 산업과 내수시장 위주의 경제구조, 정부의 과감하고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 시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빨리 경제위기 파고를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도는 우리 기업의 진출이 보다 확대되어야 할 국가이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낯선 시장이고 제약요인도 많은 복잡다단한 시장입니다. 따라서 인도시장에 진출하기 전 진출분야에 대한 충분하고 주도면밀한 시장조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인적자원과 자금력,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철저한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나라입니다.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에서는 지난해 12월 인도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조사 및 우리 투자기업 경영실태 파악을 위한 출장을 다녀왔으며, 당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우리 기업의 인도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 자료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 자료가 인도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자료 집필에 수고한 KOTRA 홍창표 차장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1월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임 성 영** 과장



○국　명 : 인도 공화국 (The Republic of India)
○면　적 : 328만 7,263 Km2 (한반도의 15배, 남한의 33배, 세계 7위)
○기　후 : 열대 몬순 (서부, 남부, 해안), 온대 (북부)
○수　도 : 뉴델리 (New Delhi, 1931년 Calcutta에서 천도)
○인　구 : 11억 3,700만 명 (2007/08년 기준)
○주요도시 : Mumbai (구 Bombay, 서부), Kolkata (구 Calcuta 동부), Chennai (구 마드라스, 남동부), Bangalore (남중앙부)
○민족 (인종) : 공식어인 영어와 힌디어외 14개 공용어 사용
○종　교 : 힌두 (82.4%), 회교 (11.7%), 기독교 (2.3%), 시크교(2.0%), 불교 (0.8%), 자이나교 (0.4%), 기타(0.4%)
○건국(독립)일 : 1947. 8. 15 (영국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연방정부 구성: 양원제(상원, 하원), 하원에서 다수정당이 정부구성
○국가원수 : Ms. Pratibha Patil(대통령, 취임일 2007.7.25, 5년 임기)
－총　리 : Mr. Manmohan Singh(총리, 취임일 2004.5.22, 5년 임기)
○집권당 : 의회주의당 (Congress중심 UPA연합)
○입법부 : 양원제 (상원 250석, 하원 545석)
○정부성향 : 비동맹 원칙하에 친 러시아, 파키스탄 적대, 대미 협력, 중국과는 비우호

Ⅰ. 최근 경제현황 및 전망

1. 인도 경제의 위상 및 현주소

| 세계 경제 성장의 쌍두마차 |

☒ BRICs, CHINDIA 등 각종 신조어의 중심에 있는 인도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성장중인 중국과 함께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성장률은 2005-06 회계연도 9.4%, 2006-07 회계연도 9.6%, 2007-08 회계연도에 9.0% 등 3년 연속 9% 이상의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주요 경제 지표

회계연도	단위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GDP	백억루피	2,766	3,126	3,567	4,126	4,713
1인당 GDP	루피	25,773	28,684	32,224	36,771	41,416
경제성장률	%	8.5	7.5	9.4	9.6	9.0
무역수지	억달러	△143	△280	△460	△642	△795
- 수출	억달러	639	835	1,031	1,262	1,591
- 수입	억달러	782	1,115	1,491	1,904	2,386
인플레이션	%	5.5	6.4	4.4	6.5	4.6
실업률	%	9.2	8.9	7.9	7.8	8.0
저축률	%/GDP	29.7	31.1	32.4	32.5	32.0
FDI	억달러	26	37	55	157	246
외환보유고	억달러	1,129	1,415	1,516	1,992	3,023
외채	억달러	1,116	1,330	1,381	1,697	2,014
환율	Rs/US$	43.39	43.75	44.61	43.59	40.3

* 주 : 연도는 인도 회계연도 기준(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
자료 : CMIE

☒ IMD의 「세계경쟁력평가」에 의하면 전체 55개 국가중 인도의 국가경쟁력은 2000년 41위에서 2003년 50위, 2004년 34위, 2005년 39위, 2007년 27위, 2008년 29위로 과거 대비 경쟁력이 점차 향상되고 있는 추세임[1)]

2008년 IMD의 인도 경쟁력 평가

평가 항목	순위	평가 항목	순위
경제운영성과	**18**	**기업경영효율**	**20**
국내경제	12	생산력 및 효율	33
국제무역	31	노동시장	5
국제투자	19	금융	23
취업	13	교육훈련	29
물가	33	태도 및 가치	11
정부행정효율	**23**	**인프라 구축**	**49**
중앙정부 재정	31	기초 공공건설	40
재정정책	9	기술적 공공건설	41
기관시스템	28	과학적 공공건설	29
비즈니스입법	32	보건 · 환경	51
사회구조	44	교육	54

* 자료: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8

| 내수 중심의 경제구조 |

☒ 인도 경제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외에 간접투자 자금(FII, PE 펀드 등)을 재원으로 국내 산업 및 인프라에 투자, 내수를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면에서 중국은 물론, 기타 아시아 신흥 경제국과 차별화가 되고 있음

| 서남부지역 중심의 개발 정책 |

☒ IT산업과 제조업이 집중된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북 동부지역보다 빠른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지속된 9%대의 고도 성장세는 도농(都農)간, 주(州)간 심각한 경제개발 격차에 대한 외부의 부정적 인식을 완화함

1) 참고로, IMD 세계경쟁력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순위는 2006년 38위, 2007년 29위, 2008년 31위임

| 3차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

⊠ IT 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산업 및 기타 서비스업으로 구성된 3차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음. 제조업 부문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GDP의 30%대에 그침

• 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2007-08 회계연도중 서비스 산업의 GDP 기여도는 53%에 달함[2)]

인도의 산업 구조

(단위 : %)

회계연도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1차 산업	21.0	19.2	18.8	18.3	17.8
2차 산업	26.2	28.2	28.8	29.3	29.4
3차 산업	52.8	52.6	52.4	52.4	52.8

* 자료 : EIU

⊠ 1차 산업의 GDP 기여도는 17.8%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나, 인구의 약 60%가 해당 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몬순에 따른 농업성과가 경제성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등 여전히 중요한 산업임

| 대외 교역 의존도 증가 |

⊠ 인도의 교역 기준 세계경제 통합도는 1990년대 초반만 해도 GDP의 15% 대로 현저하게 낮았으나, 2007년에는 40% 수준으로 상승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에 통합되고 있음

|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 |

⊠ 제조업 기반이 열악한 인도는 산업 생산을 위한 원자재, 중간재 및 원유 수입이 필수적이어서 만성적인 무역적자 구조를 갖고 있으며, 2007-08 회계연도에는 무역적자 규모가 791억 달러에 달함

2) 서비스산업은 또한 23%의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인도의 주요 교역대상국

(단위 : 백만 달러)

수 출			수 입		
순위	국가	금액	순위	국가	금액
1	미국	20,705	1	중국	27,141
2	UAE	15,479	2	사우디	19,534
3	중국	10,523	3	UAE	13,494
4	싱가포르	7,126	4	미국	13,352
5	영국	6,607	5	이란	10,974
11	일본	3,746	13	일본	6,329
13	**한국**	**2,865**	**14**	**한국**	**6,060**
총 계		**160,374**	**총 계**		**239,484**
무역 수지			**△79,110**		

* 주 : 2007-08 회계연도
자료 : World Trade Atlas

- 5대 수입대상국 중 3개국이 중동 산유국일 정도로 원자재 분야의 대외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특히 최근들어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주요 수출품은 농산물, 면사/직물, 석유화학, 귀금속, 철광석, IT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연료, 금, 기계, 수송설비, 화학, 정밀금속, 비료 등임

| 최근 외국인직접 투자 급증세 시현 |

☒ 개방이후 15년간(1991~2005) 외국인 직접투자(FDI) 누계는 총 389억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6-07년부터 외국인투자가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對인도 FDI 추이

(단위 : 억달러)

회계연도	2003-04	2004-05	2005-06	2006-07	2007-08
FDI	26.3	37.6	55.0	157.5	245.7

* 자료 : RBI, FIPB

2. 최근 경제동향

|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시현 |

☒ 경제성장에서 해외 투자자금의 의존도가 높은 인도 경제는 세계적 금융 위기로 인한 선진국 자본의 디레버리징 및 위험자산 재조정에 따라 심각한 자금 유출이 나타나 경기 위축세를 보였음

- 인도 경제의 대외 수출 의존도는 낮으나 경제개발 재원의 해외자금 및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신용위기로 인한 유동성 부족 및 신용경색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투자 위축, 실업률 증가, 소비 둔화 등으로 연결됨[3)]
- 인도 정부는 2007-08년 경제성장률을 8.7%로 전망하고 2008-09년은 8~8.5%선으로 내다보고 있으나 민간 경제기관들은 2008-09년의 성장률이 7~7.5%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그러나 일부 해외 전문기관에서는 경제성장률이 2008-09년 6.7%에서 2009-10년 6.2%선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4)]

☒ 2008년 10월 들어 5년 이래 첫 수출 감소(-12.1%)와 15년 이래 산업성장률 최초 하락(-0.4%) 등 글로벌 경기침체의 충격이 나타나자, 인도 정부는 수요 진작을 위해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음

- 앞으로 이러한 산업생산 둔화세가 인도 경제의 주축인 서비스업에 대해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준 것인지가 경제성장률 달성의 주요 관건이 될 것임

| 물가 |

☒ 물가는 2008년 1월 3.8% 수준에서 8월 12%대까지 치솟았으나 12월에는 8.5%로 다소 진정되는 상황임

3) 인도는 부동산 거래가 대부분 현금거래 위주이기 때문에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같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

4) 영국 ECONOMIST지는 2009년 인도 경제성장률이 2002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5.5%까지 하락할 것으로 보도함

- 유가, 곡물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2008년 8월 도매물가 상승률이 12.63%를 기록, 정부 목표치인 5.5%를 훨씬 넘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함
- 통화긴축 정책이 본격 시행된 2008년 6월 이후 인플레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8월을 고비로 9월부터 유가 및 원자재가격 하락, 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로 반전되었음
- 곡물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유가 및 원자재가격 급락으로 인해 12월 물가상승률은 8%대까지 하락함[5)]
- 식료품 부문의 도매 물가상승률도 최근 7개월 이래 최저치인 8.63%를 기록함

☒ 금년들어 물가안정에 최우선적 정책목표를 두었던 인도정부는 10월 이후 물가상승률이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자 정책금리 인하, 현금유보율 인하 조치 등 보다 적극적인 경기부양 조치를 취함

- 중앙은행은 10월 이후 지급준비율(CRR, Cash Reserve Ratio)을 9%→8.5%→7.5%→6.5%→5.5%→5% 등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함

☒ 경기침체가 진행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정부의 경기부양책은 2009년에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금리 |

☒ 금리는 2008년 상반기부터 정부의 유동성 흡수정책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으나, 10월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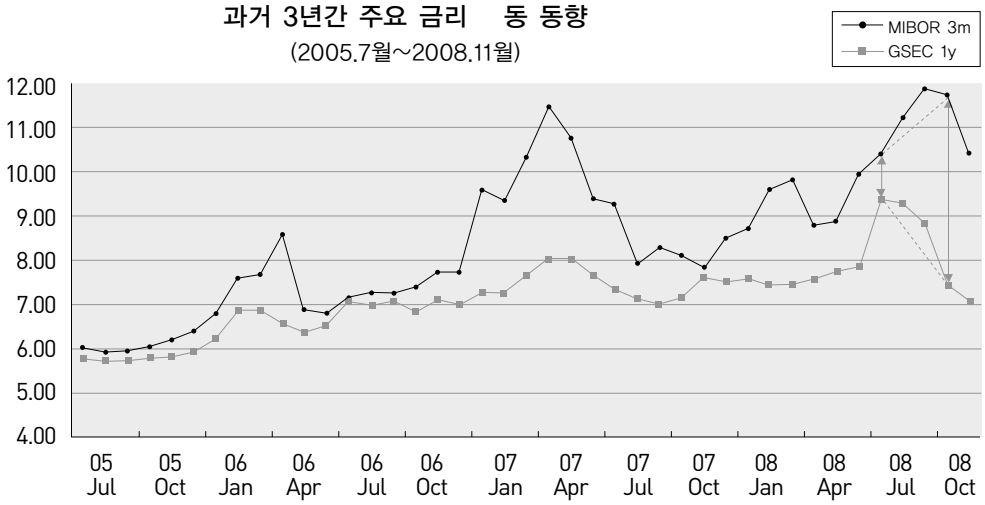
- 정책금리 인하로 인해 국고채 등 금리는 일부 인하되었으나 여전히 시장의 불안정성이 신용스프레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임

  – 시중 대출금리는 9월 9~11%에서 12월 12~18% 수준으로 상승

- 2008년 12월 현재 주요 시장금리는 PLR 13~15%, Deposit Rate 7.5~9.6%, REPO 6.5%, 콜금리 4~21% 수준임

  – 기준금리(REPO)는 10월 이후 9%→8%→7.5%→6.5%→5.5% 등으로 지속 인하됨

5) 주간 도매물가상승률(WPI)은 최근 7개월 이래 최저치인 8.0%를 기록(11.29 기준)



* 자료 : 신한은행 뉴델리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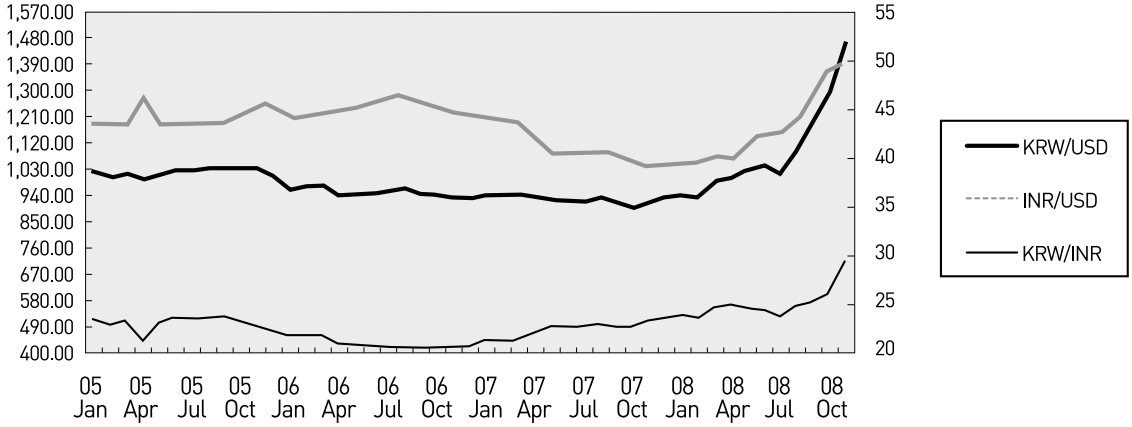
〈인플레가 차츰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인도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해 나가고 있다.〉

| 환율 |

☒ 환율은 외국인직접투자가 대거 유입되던 2007년부터 2008년 초까지는 하향 안정 추세였으나 2008년 4월이후 외국인간접투자(FII) 자금의 이탈과 거액의 무역적자 등의 원인으로 급상승하고 있음

• 미 달러화 대비 루피화 환율은 2008년 1월 39.4루피에서 5월 42.8루피, 12월에는 49~50루피까지 상승[6], 연초대비 20%이상 절하되었으며, 금융환경 불안정으로 인해 단기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과거 3년간 환율 추이(2005. 1월~2008. 11월)



* 자료 : 신한은행 뉴델리지점

• 12월 18일 달러당 루피 환율이 46.95루피를 기록하는 등 12월 들어 루피화 환율 상승세가 차츰 둔화되고 있음

– 최근 루피화 환율 추이: 49.58(12.8) → 48.05(12.15) → 47.66(12.17) → 46.95(12.18)

• 환율 방어를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외환보유고는 2008년 5월 3,160억달러에서 10월에는 2,520억달러로 급감함

| 산업생산 |

☒ 2008년 6월 인도의 6대 기초산업(원유, 정유, 석탄, 전력, 시멘트, 철강) 성장률은 3.4%로 전년 동기의 5.2%에 비해 크게 낮아짐

• 2008년 1분기 산업성장률도 3.5%에 그침으로써 전년 동기 6.4% 및 전년도 전체 성장률 8.6%와 비교해 크게 하락함. 이러한 수치는 2004-05 회계연도 이후 가장 낮은 것임

• 2008년 10월 6대 산업 성장률은 전년 동월대비 1.2% 하락한 3.4%를 기록함

6) 동 루피화 가치는 최근 6년 이래 가장 낮은 수준임

- 특히 철강(-0.5%), 원유(-0.3%) 부문의 성장률이 하락했으며, 정유제품(5%), 석탄(10.9%), 전기(4.4%), 시멘트(6.2%) 부문의 성장률은 상승함

☒ 2008년 10월 산업생산지수(IIP) 성장률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여 -0.4%를 기록(전년 동월 12.2% 성장)[7]

-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와 IIP의 80%를 차지하는 제조업 성장률 하락(2007년 10월 13.8% → 2008년 10월 -1.2%)이 동 성장률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

| 재정수지 |

☒ 과거 수년간의 노력으로 인도정부는 재정적자를 상당 폭 축소시켰으나, 최근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산업성장률 하락과 더불어, 2008년 11월 정부의 직접세 및 관세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 0.5% 줄어든 18억불, 18.7억불 기록함[8]

☒ 2009년 5월 총선을 앞두고 농가부채 175억달러 탕감, 공무원(약 340만명) 급여 40% 인상 등의 당근책을 추진함으로 인해 정부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이로 인해 GDP에서 차지하는 재정적자 비중은 전년도 7.7%에서 크게 늘어난 11.4%에 달할 전망임

| 무역수지 |

☒ 인도의 교역액은 1990-91 기간중 420억달러에서 2007-08 기간중 3,914억달러로 10여년 동안 약 10배 가까이 확대되었으나, 무역적자 역시 60억달러에서 13배 급증한 804억달러로 확대됨

7) G K Pillai 상공부 차관은 경기침체 여파가 지속되어 11월 산업생산지수는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말함. The Financial Express, 12.13

8) The Financial Express, 12.16

- 2008년 4~10월중 무역수지는 최근 고유가 및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증가와 세계 경기침체로 인한 수출 감소 여파로 수입증가율(36.2%)이 수출증가율(23.7%)를 크게 초과하면서 무역수지 적자가 전년 동기 대비 59.9% 확대됨
- 인도는 기본적으로 무역수지 적자 상당 부분을 무역외(서비스) 수지 흑자에서 보전하고 자본수지에서 흑자를 만드는 구조이나, 미국 및 유럽경제의 침체는 무역외(서비스) 부문의 성장률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상수지 적자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 자본수지의 경우 2008년 4~7월중 외국인직접투자금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간접투자금액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순감소되어 외환보유고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됨

| 외환보유고 |

☒ 외환보유고는 2008년 5월 3,160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10월말 현재 불과 6개월 만에 600억달러가 감소한 2,529억달러로 줄어들었음

- 2006~2007년 급격한 증가추세에서 2008년 3월이후 무역적자 확대, 환율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 FII 감소 및 NRI 감소 등의 영향으로 급속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10월중 334억달러가 감소하여 러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음
- 2008년 12월 5일 기준 인도의 외환보유고액은 전 주 대비 18.2억불 감소한 2,458억달러로 집계됨(11월말: 2,476억달러)[9]

| FDI 및 FII |

☒ 2008년 1~8월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은 서비스, IT, 부동산분야에 대한 유입이 확대되면서 265.2억달러로 급증함

-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8-09 회계연도 1분기 기준 외국인 간접투자 금액은 전기대비 174.5억달러가 감소하여 상당 폭의 외국자본 유출이 발생함

9) The Financial Express, 12.12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7년 4~7월	2008년 4~7월	최근 월 누계
FDI	5,706	12,320	26,523(08년 1~8월)
FII	11,774	-5,676	-10,923(08년 1~11월)

* 자료 : 신한은행

- 2008년 4월~9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72.5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137% 증가하였지만, 10월 유입액은 14.9억불로 전년 동기대비 26% 감소함[10)]

☒ 글로벌 신용위기가 불거지자 인도정부는 2008년도 FDI 유치목표를 기존 350억달러에서 300억달러로 하향 조정함

| 외채 |

☒ 2008년 3월말 잔액기준 외화차입금은 2,212억달러로 나타나며, 최근 3년간 외채 규모는 평균 25%씩 증가함

- 외환보유고 대비 부채비율은 71%(2,212억달러/3,097억달러)로 나타남

| 주요 경제현안 및 전망 |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인도의 금융시장 불안, 수출 감소 때문에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2008-09 회계연도에 7.8%에서 7%로, 2009-10 회계연도에는 7%에서 6.5%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함[11)]

☒ 일각에서는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되고 나면 인도는 가장 투자가 유망한 국가중 하나로 재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함

- 이는 루피화 평가절하로 인해 IT산업 및 대외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 최근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으로 기업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는 점, 경기악화로 인한 알짜기업의 가격하락으로 인도기업의 M&A 열풍이 재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임

10) The Economic Times, 12.17
11) The Economic Times, 12.16

• 현재 인도기업이 글로벌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사업기회를 모색하고 있으며, 정부의 강력한 경기부양 및 물가안정 정책, 양호한 내수소비 기반, 도시화 진전 확대 등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인도 경제전망은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주요 경제 현안	내 용
FII 순유출	-FII 및 NRI 예금의 감소로 인해 외환보유고의 지속 감소 및 환율 불안 요인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음
무역적자 확대	-무역적자폭 지속 확대 및 구조화로 국제수지 악화, 환율불안, 국가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음
무역외수지 악화	-서비스수지 상당부분이 해외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세계 금융 위기로 인한 타격이 우려됨 -국제수지악화,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 사회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음
정부의 경기부양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금융정책이 아직 실물시장에까지는 반영되지 않고 있음(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스프레드 증가로 실질금리 상승)



〈상대적으로 낮은 단기 부채,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FDI와 대비하여 FII의 이탈, 외환보유고 감소, 환율불안, 정부재정 악화 등은 현재 인도경제에 내재되어 있는 불안 요인이다.〉

II. 한-인도 경제교류 동향

1. 對인도 교역동향

| 10위 수출대상국, 16위 수입대상국 |

☒ 양국간 교역은 2003년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1월~11월중 우리나라의 對인도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41.2%, 수입은 50% 증가하여 인도는 우리의 10위 수출 대상국, 16위 수입대상국으로 자리잡음

한-인도 최근 수출입동향

(단위 : 천 달러, %)

연도	수 출		수 입		총교역	무역수지
	금 액	증가율	금 액	증가율		
2003	2,852,952	106.1	1,232,745	-1.3	4,085,697	1,620,207
2004	3,631,978	27.3	1,849,982	50.1	5,481,960	1,781,995
2005	4,597,837	26.6	2,112,076	14.2	6,709,913	2,485,761
2006	5,532,797	20.3	3,640,789	72.4	9,173,586	1,892,008
2007	6,600,039	19.3	4,624,421	27.0	11,224,460	1,975,618
2008	8,454,461	41.2	6,332,337	50.0	14,786,798	2,122,124

* 주 : 2008년은 1~11월 기준
자료 : KITA

|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 |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부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선박, 석유제품, 합성수지, 종이제품, 기계류 등임

• 휴대폰을 비롯한 무선통신기기는 지난 몇 년간 인도수출을 리드해 오고 있으며, 작년 주춤한

이후 올해들어 다시 급증하고 있음

- 현대자동차 및 GM의 인도 진출에 따라 여러 협력업체들이 인도에 진출하고 있으며 이들의 원부자재 수급을 위한 자동차부품 수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인도전반에 걸친 인프라 개발붐의 영향으로 철강판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며 석유제품, 합성수지, 기계류 등의 수출도 활발함

對인도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6		2007		2008 (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자동차부품	626	46.6	879	40.4	1,247	56.0
철강판	494	37.1	763	54.3	965	40.4
무선통신기기	1,237	5.8	485	-60.8	842	87.8
석유제픔	423	91.4	532	25.7	758	53.8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3	-76.9	328	664.9	574	76.1
합성수지	183	-18.6	226	23.7	330	61.8
종이제품	116	61.7	114	-1.9	184	81.3
기타기계류	163	105.9	206	26.1	180	-3.7
합성고무	61	44.2	115	88.5	171	71.2
기타석유화학제품	88	32.4	152	73.6	160	13.7
총계	**5,533**	**20.3**	**6,600**	**19.3**	**8,454**	**41.2**

* 자료 : KITA

對인도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6		2007		2008 (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석유제품	1,752	118.1	2,502	42.8	3,778	66.1
식물성물질	181	63.9	223	23.4	432	108.5
합금철선철및고철	95	-13.3	154	63	384	164.9
천연섬유사	246	11.3	205	-16.8	198	5.6
기초유분	42	746.4	103	143.9	126	39.8
정밀화학원료	77	16.2	82	6.9	112	50.3
철광	85	73.2	128	50	92	-7.4
농약및의약품	38	-0.5	76	98	78	15.1
곡실류	33	203.6	31	-5.5	59	15.1
자동차	102	-20.3	18	76.9	55	317.1
총계	**3,641**	**72.4**	**4,624**	**27**	**6,332**	**50.0**

* 자료 : KITA

2. 對인도 투자현황

| 인도 진출 우리 기업 현황 |

⊠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진출은 수출입은행 통계상으로 신고건수는 904건, 신규법인수 392개, 투자금액 14.6억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 영업하고 있는 기업체수는 약 330여개사 정도로 파악됨

對인도 투자진출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금액
합계	904	382	2,123,330	1,464,359
1983	1	1	120	119
1986	0	0	0	0
1987	1	0	60	0
1988	1	1	24	25
1989	4	2	2,623	1,046
1990	4	2	2,060	963
1991	5	4	2,609	2,674
1992	6	2	4,176	3,233
1993	8	5	4,128	1,436
1994	20	8	52,258	43,065
1995	25	13	184,301	13,833
1996	34	11	372,985	150,295
1997	33	15	83,708	135,570
1998	22	13	301,305	305,356
1999	15	3	116,382	15,048
2000	9	7	12,077	15,378
2001	23	10	35,203	29,095
2002	16	9	43,039	44,837
2003	27	11	21,207	16,893
2004	56	26	48,947	40,773
2005	75	33	112,700	91,132
2006	151	68	150,291	98,490
2007	204	86	330,057	290,149
2008	164	52	243,069	164,948

* 주 1 : 2008년은 1월~6월까지 실적임
주 2 :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하고, 투자건수는 송금건수를 의미함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지역별로 델리 약 130개사, 첸나이 95개사, 뭄바이 · 뿌네 40개사, 방갈로 10개사 등으로서 최근 진출업체는 주로 LG전자 및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델리 인근과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첸나이 그리고 뭄바이 인근 뿌네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공공기관으로 KOTRA KBC가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에 소재하고 있고 한국수출입은행, 수출보험공사, 한국관광공사가 뉴델리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LG, 삼성, 현대와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뉴델리, 첸나이 및 뭄바이 인근 뿌네 지역에 주로 진출하고 있음

• 무역, 물류, 금융서비스 부문은 뭄바이, IT · S/W R&D 부문은 방갈로르와 하이데라바드 지역, 건설 및 인프라 개발은 뉴델리와 뭄바이 지역에 주로 진출하고 있음

對인도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2	2	309	6	255
제조업	116	28	202,008	186	123,116
건설업	5	4	991	8	2,955
도매 및 소매업	14	7	987	14	790
운수업	2	0	100	4	16
숙박 및 음식점업	3	2	68	2	1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0	2,500	4	2,543
금융 및 보험업	1	0	30,080	1	30,08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0	900	0	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4	1	2,150	5	2,85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4	3	520	4	450
교육 서비스업	9	4	1,656	17	1,15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	0	500	1	500
소 계	**164**	**52**	**243,069**	**255**	**164,948**

* 주 : 2008년 1~6월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제조 업종별 투자진출 현황

(단위: 건, 천 달러)

업종 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투자건수	투자금액
식료품 제조업	2	1	89,692	3	21,408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7	2	3,088	7	1,3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	0	0	0	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	1	233	2	21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3	1	1,047	7	1,310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2	2,410	3	80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	0	500	3	800
1차 금속 제조업	2	0	12,248	2	12,248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2	2,852	9	3,489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	1	1,064	19	1,492
전기장비 제조업	3	0	600	7	55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	3	21,103	15	23,66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63	12	60,772	98	49,59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2	6,032	2	6,012
기타 제품 제조업	7	1	368	9	209
소 계	**116**	**28**	**202,008**	**186**	**123,116**

* 주 : 2008년 1~6월말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지속적 경제성장과 함께 크게 확대되는 내수시장을 겨냥하여 국내 전자업계의 인도 진출이 확대되고 있다〉

지역별 진출기업 현황

지 역	기업수	주요 업종	주요 기업
델리(인근포함)	136	전기전자 · 기계, 건설(엔지니어링) · 중공업, 국제해운(운송) · 무역 · 유통, 금융, 컨설팅, 통신	– 삼성전자(TV · 냉장고 · Mobile 생산), LG전자(TV · 에어콘 · 냉장고 생산), 현대자동차, 현대 로템(전동차 공급) – 삼성건설(지하철공사), 쌍용건설(고속도건설), 현대건설(사장교공사), 삼성엔지니어링(플랜트건설),포스코건설(제철소건설 추진), 롯데건설(롯데제과 공장 신축), 대림산업(컨설팅), 두산E&S(파워플랜트설계), GS건설 · SK건설(플랜트설계), 삼성중공업(해양구조물 설계) – 고려종합국제운송, 대한항공(항공화물), 범한종합물류, 현대택배 – 대우인터내셔널, 롯데백화점 · 마트, CJ, 삼성물산, KT, 신한은행 등
첸나이	140 (대부분 현대차 협력업체)	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 국제해운(운송), 제과 · 유통	– 현대자동차(협력업체 : 만도 · 화승 · 화신 등) – 삼성전자 제2공장, 롯데제과 – 유코카케리어스, 글로비스, 한진해운
뭄바이 · 뿌네	40	전기전자, 건설, 국제해운(운송), 무역 · 유통, 금융	– 삼성전자(Mobile · 가전 판매), 두산중공업(화력 발전소 건설), 현대중공업(건설기계 판매), 삼성물산(수주활동) –한진해운, 현대상선, 신한은행 –LG전자 뿌네 공장(Mobile 생산주력)
방갈로	10	소프트웨어, 전기전자 · 기계	– LG소프트웨어, LG CNS, SIS, 삼성SDS – 삼성전기, 두산중공업, Hynix 반도체, 로템 등
부바네스와르(오리싸)	1	제철	– POSCO
부바네스와르(오리싸)	1	화학	– LG화학
부바네스와르(오리싸)	1	화력발전소 운영관리	– 한전기공
부바네스와르(오리싸)	1	화력발전소 운영관리	– 한전기공
계	330개사	※ 교민수 6천여명(주재원+가족, 자영업자, 유학생 등 포함) – 델리 3천여명, 첸나이 2천여명, 기타 천여명	

* 주 : 2008년 10월 현재
자료 : 주인도 한국대사관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인도 및 중국에 대한 투자진출 현황을 비교해보면 인도에 대한 투자비중은 중국과 비교하여 신고건수는 2.4%, 투자금액은 3.9%에 불과할 정도로 투자규모가 낮음

• 전체 직접투자 대비 국별 비중은 인도가 투자건수 1.1%, 투자금액 0.9%이며 중국은 투자건수 43.3%, 투자금액 23%로 나타남

對인도 및 중국 직접투자 동향

(단위 : 건, 백만달러)

구분	인도			중국			세계		
	2007	2008	누계	2007	2008	누계	2007	2008	누계
건수	204	164	904	4,544	2,590	37,070	11,705	8,449	85,673
금액	330	243	1,464	7,144	4,075	37,464	28,925	26,181	163,177

* 주 1 : 건수 및 금액은 신고기준이며, 신고건수는 공동투자, 증액투자를 포함함
2 : 2008년은 1월~6월 누계 기준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화승(HSI AUTOMOTIVES) 첸나이 공장. 웨더 스트립 및 각종 호스류 등 자동차부품 생산에서부터 소재생산까지 사업영역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3. 향후 경제교류 전망

⊠ 세계 금융위기가 인도 실물경기에도 빠르게 영향을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對인도 주요 수출품목의 수출 및 투자기업의 사업 여건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자동차부품 수출은 10월 이후 급격한 자동차판매 감소와 조업단축 및 중단 등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전망이며,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철강 제품 전반에 대한 수입 규제 및 반덤핑 조사로 해당 품목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루피화 가치 급락으로 수입 계약 및 결제 지연 등으로 인해 對인도 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인도내 기진출 투자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악화된 경영 여건으로 조업 단축 등 비용 절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인도 및 한국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투자 보류 등으로 직접투자 진출은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음

- 2008년 9월말 현재 266건, 1.7억 달러 투자가 이루어져 전년 동기 2.6억 달러 투자 대비 35.1% 감소하였으며, 10월 이후 기업들이 신규 투자진출 계획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등 투자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우리 기업의 인도시장 진출은 유통 · 전자 · 기계 및 자동차부품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간헐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전망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인도의 경제상황이 그다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인프라 미비, 부지 및 인력난, 행정관청의 비효율 등 인도투자의 애로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 및 세계 경기침체 등 악재가 가중되고 있으므로 단기적인 투자진출은 주춤할 전망임
- 규모별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전체 투자의 7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투자형태별로는 현지법인 형태의 투자진출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중장기적으로 제조업 투자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뉴델리지역 보다는 첸나이 · 뿌네 지역에서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對인도 투자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대형 프로젝트의 진척이 필수적이나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대형 프로젝트 추진이 지지부진 하면서 인도투자가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포스코의 인도 제철소 프로젝트 (120억불 규모)는 본격적인 추진이 4년째 지연되고 있으며, 롯데백화점의 백화점건설 프로젝트도 지지부진함. 현대자동차 · 삼성전자 · LG전자 등 빅 3의 활약은 고무적이나 최근 금융위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한편, 한-인도 CEPA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나, 2009년 5월에 있을 인도 총선결과에 따른 정치적 변동 역시 인도 투자진출에 직간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됨



〈인도시장에서 높은 이미지로 판매호조를 보이고 있는 현대자동차 i10 모델〉

III. 인도 투자진출 유의사항 10계명

1. 인도와 중국을 혼동하지 마라

- 인도와 중국은 같은 아시아 국가로서 광대한 국토를 보유하고 있고 세계 1, 2위의 인구대국일 뿐만 아니라 유구한 역사와 문화 민족으로서의 자랑과 긍지를 지니는 공통점이 있음
  - 인도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광대한 내수시장으로서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중국이 해외에 수많은 화교를 지니고 있는 것과 같이 인도 또한 해외에 수많은 인도 교포(인교)가 살고 있음

- 인도는 여러 면에서 중국과 비슷한 점이 많은 시장이나 정치, 문화 및 사고방식 등 다방면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을 인식하고 진출 방식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음
  - 사회주의, 인치(人治)주의인 중국에 비해 인도는 정치적으로 다원화되고, 서구식 합리주의적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사회임

- 양국간 상술 역시 차이가 많은데, 인도 상술의 특성은 이해관계를 무엇보다 앞세우며 이익 추구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점이 특징으로, 인도상인들은 모든 거래에서 최소 5%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로 생각하고 있음
  - 중국인은 상행위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의를 으뜸으로 여기고 있음. 중국인들에게 있어 상행위는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한 방편이며 흥정이나 매매는 단지 수단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한번 인간적으로 맺은 '관계(關係)'를 소중히 여기는 특성이 있으나

- 인도상인은 가족과 친지와의 연대의식이 강한 중국 상술과 치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유대인의 상술이 결합된 성향을 보이고 있어 매우 뛰어난 분석력과 함께 논리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12]
- 고객관리 방식에 있어서도 인도상인은 중국상인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중국 상인은 신용에 의한 장기 고객 관리에 신경을 쓰는 반면에 인도 상인은 그때그때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함
- 인도 상인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도 조심해야 함. 인도의 각박한 생활환경과 카스트 계급 제도의 영향 때문에 말을 자주 바꾸는 경우가 많으며,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할 경우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상인이 많음
- 인도인은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도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하기 보다는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가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기 자신과 가정, 혈족과 친지 등 가까운 주위를 제외한 바깥 사회를 쉽게 신뢰하지 않는 특성을 내포함. 이러한 특성이 더해져 인도 상인들은 자신들이 거래에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심지어는 연극까지 할 정도로 절대로 상대방을 믿지 않음
- 국민성에 있어서 중국 사람은 체면을 중시하며 중화사상으로 뭉쳐 있으나 인도 사람은 개성과 실사구시의 정신이 뚜렷하며 민족의식도 중국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외국제품이 중국보다는 상대적으로 인도 소비자들에게 파고들기가 쉽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시장 개방 초기에 한국에서 외면 받는 조악한 품질의 제품을 중국에 내다 팔다가 이내 실패한 사례를 경험했듯이, 인도시장은 처음부터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고 경쟁력이 있는 제품, 기술력을 확보한 제품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할 것임

2. 열악한 인프라 환경에 대비하라

⊠ 광활한 국토면적을 고려할 때 현재 인프라 여건의 개선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13], 부족한 전력상황, 취약한 도로 · 항만 여건 및 용수난 등의 열악한 인프라 환경을 충분히 숙지한 후 총체적인 투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진출해야만 함

12) 힌두교는 종교적 교리나 우주관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숫자를 많이 사용하는 전통에 따라 수학이 매우 발달했으며, 이에 따라 인도 상인 역시 유대인과 같이 셈에 매우 능하다고 알려지고 있음

13) 인도는 1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2007~2012) 기간중 인프라 부문에 4,940억 달러를 투자할 방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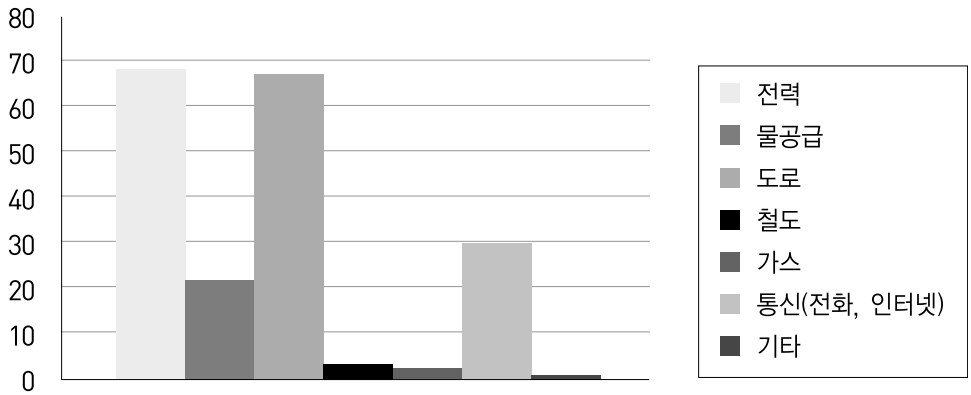


〈지속적 경제성장으로 인한 주민소득 증가로 첸나이 스펜서 플라자(Spencer Plaza)처럼 고급 유통매장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 인도 투자환경 평가에 있어 가장 낮은 점수를 받는 것 중 하나가 인프라 부재로, 전력, 용수, 항만, 도로, 공항 등 거의 모든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여 경제발전 및 외국인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14]

- 인도에 투자한 한국투자기업들 중 95%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인도의 인프라 환경에 대해서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전력 및 도로 등의 인프라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15]

개선이 필요한 인프라환경



* 자료 : KOTRA 뉴델리KBC

14) 「Business Week」지는 인도 특집기사에서 열악한 인프라가 인도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함. The Trouble With India, 2007년 3월

15) 인도진출 82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8.5, KOTRA

⊠ 전력의 경우 평상시 전력부족률이 8~9%, 피크타임 전력부족률은 12~13%에 달하며 전력의 품질도 매우 불량하여 하루에도 적게는 2~3시간, 많게는 7~8시간 단전이 일상화 되어 자체 발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태반임

- 전력공급률은 도시지역의 경우 79%, 농촌지역의 경우 44%에 불과하여 아직도 다수의 지방에서 충분한 전기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16)]
- 또한 일정하지 않은 전압으로 인해 자체적인 정격 전압으로 조정해야 하는 등 예기치 않은 비용 발생이 가능하다는데 유의해야 함



〈인도의 극심한 전력난으로 예기치 않은 추가비용 부담이 상당한 실정이다. 제조업체들은 필수적으로 자가 발전기를 가동해야 하며, 전력 안정성도 취약하다. KOTRA KBC 사무실이 위치한 시내 상업중심 지역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정전이 반복되곤 한다.〉

⊠ 용수난 역시 지역에 따라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첸나이에 투자한 A기업의 경우 공장설계시 빗물을 받아 활용할 수 있는 2개의 저수지를 확보하는 노력으로 부족한 용수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함

- 일반 가정에 대한 상수도 공급도 충분치 않아 물탱크를 이용하여 물을 비축하여야만 상시적 사용이 가능하며 온수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순간온수기를 설치한 가정이 대부분임

16)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8.10, 국세청

⊠ 도로사정도 매우 열악하여 전체 도로중 2%만이 연방국도(National Highway)로 이는 한국의 일반적인 고속국도와 달리 도로에 사람과 이륜차가 함께 다닐 수 있어 수시로 체증되고 사고도 빈발한 실정임[17]

- 시속 100km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는 Expressway이며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임. 연방국도가 전체 물류량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35%가 1차선, 53%가 2차선이고 4차선 이상은 12%에 불과함[18]
- 이러한 열악한 도로사정은 인도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국도개발프로젝트(National Highways Development Project)에 의해 2단계(남북–동서) 프로젝트(2008년말 완료 목표)에 이어 3~7단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는 2,010년 이후 상당 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열악한 도로 사정과 함께 수시로 도로를 점거(?)하는 소는 교통 흐름을 더욱 방해하는 요인이다.〉

17) 미국 상무부는 공공교통, 도시도로망, 비도시지역 도로망을 모두 "Poor"로, 인도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매우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있음

18)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2007, KOTRA

⊠ 인도 항만이 가지는 문제점으로는 선적 및 하역의 비효율성이 지적되고 있음[19)]

- 접안전 대기시간은 평균 0.9일인데 비해 재항기간은 4.7일에 이르고 있으며, 항구 이용비용도 주변국에 비해 훨씬 비싼 편임[20)]

⊠ 인도는 14개 국제공항과 126개 국내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나 공항 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시설확장 및 현대화가 시급한 상황으로, 인도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합작(PPP) 방식에 의한 주요 공항의 현대화 및 확장을 추진하고 있음[21)]

⊠ 또한 원료 수입 및 제품 수출과 광활한 전국토를 포괄할 수 있는 판매 물류비용도 총체적으로 감안해야 함

☞ ***현지 투자기업의 말(S사)***

"첸나이의 경우 전력사정이 뭄바이보다 더 열악한 실정이며, 수시 정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전기를 10시간 정도 공급을 안하고 나머지 14시간도 전체 허용용량의 60%만 사용하라고 하여 문제시된다. 이를 어길 경우 페널티를 부과한다. 특히 2009년부터는 이마저도 40%로 줄일 것이라고 하여 공장 정상가동이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자체 발전기를 사용할 경우 하루 기름 값만 2,400만원에 달할 정도로, 전체 매출액의 6.2%가 전기세 및 기름 값으로 나가고 있어 비용부담이 심각하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H사)***

"무엇보다 전력사정이 좋지 않으며 이로 인한 비용부담이 상당하다. 전기세, 발전용 연료비 등 전력비가 차지하는 금액은 연간 40억원으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7% 정도이며, 내년에는 관련 비용이 5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마하라쉬트라주와 타밀라두주가 전력사정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19) 주요 항만으로는 첸나이(Chennai), 엔노레(Ennore), 할디아(Haldia), 콜카타(Kolkata), 칸들라(Kandla), 코치(Kochi), 모무가오(Mormugao), 뭄바이(Mumbai), 뉴 망갈로르(New Mangalore), 파라딥(Paradip), 투티코린(Tuticorin), 바이사카퍼트남(Vishakhapatnam) 등이 있음

20) 인도 투자실무가이드, 2007, KOTRA

21) 주요 국제공항으로는 아메다바드(Ahmedabad), 암리차르(Amritsar), 방갈로르(Bangalore), 첸나이(Chennai), 고아(Goa), 가우하티(Guwahati), 하이데라바드(Hyderabad), 코치(Kochi), 콜카타(Kolkata), 뭄바이(Mumbai), 뉴델리(New Delhi), 디루베넨다푸람(Thiruvananthapuram) 등이 있음

☞ ***현지 투자기업의 말(H사)***

"철도는 연장으로는 세계 1위로 전국적인 연결망이 있지만, 영국 식민지 시대에 구축한 시설로 노후화되어 운송시간이 지체되어 분담률이 매우 낮다. 해상운송은 수요는 많으나 인프라가 부족하고 혼잡하여 국내 연안운송도 잘 안되는 상황이다. 항만은 인도가 주장하는 최고의 민주주의에 따른 업무처리의 지연으로 그 확장 및 현대화 구축이 자체적으로 곤란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중국같은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계획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 성과를 쉽게 낼 수 있지만, 인도에서는 재원부족 및 업무처리 지연,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매우 어렵다. 인도 물류시장은 법률상으로 제약은 특별한 게 없으나, 연방 · 주정부간의 비효율적 역할 분담 등 구조적인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장기적 관점(5년 주기 총선 실시로 정권 교체)에서 접근해야 한다. 물류업의 경우 영업 · 노사문제(100명 이상시 노조설립) 해결을 위한 파트너가 반드시 필요하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L사)***

"전력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다. 타밀라두주는 60%가 화력, 30% 수력, 기타 풍력과 원자력 발전으로 구성되나 수력발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전력난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온난화)에 따라 비가 많이 오지 않아 수력발전이 어려우며, 기업의 급증에 따라 전력수요가 많아지고 있어 전력난 심화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12시간 제한 송전중이며, 산업용과 가정용 모두 동일하다. 2007년은 6시간 제한 송전되었고 2008년 들어 제한 송전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하루에 10~20번 정도 예고없이 단전사태가 발생한다. 디젤유 값이 비싸므로 자가 발전기를 돌려도 비용부담이 심각하여 원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3~4년 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공장을 내후년 초 가동해야 하는데 큰 걱정이다.

용수난도 심각하다. 현재 국지적으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강우량이 연평균 200~300mm에 불과하다. 지하수 개발도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마저 쉽지 않고, 용수도 외부에서 구입해서 조달해야할 상황이다. 용수문제 때문에 공장내 기본적으로 저수조를 만들어야 한다. 공장 설계시부터 빗물이 모여 저장되어 재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방대한 인도 건설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 및 정부차원의 전략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함

• 인도는 2010년 뉴델리 영연방 체육대회 개최, 인 · 미 핵협정에 따른 핵발전소 건설 추진, 내수 경기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 대폭 확대 등으로 식어가는 중동시장의 새로운 대체 건설시장으로서 부각되고 있음

• 현재 인도 건설시장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고, 방대한 시장규모와 복잡한 인 · 허가 절차 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건설교통관의 추가 파견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임



〈인도 뉴델리는 지금 도시 곳곳이 거대 건설현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뉴델리 공항에서 바라본 공항 확장공사 모습〉

3. 합작투자보다 단독투자가 유리하다

⊠ 합작투자 후 유연하지 못한 기업 운영, 이익 배당과 과실 송금의 어려움 등 의사결정 과정 전반에 걸친 인도 파트너와의 갈등이 현지 진출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진출시 가능한 한 단독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적으로 합작투자를 할 경우 의사결정 지연 및 분쟁 등 합작에서 오는 일반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바, 좋은 파트너의 선정, 운영과정에서의 상호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마련, 분쟁에 대비 합작투자 종결과정의 문서화 등을 철저히 대비해야 합작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음

- 만약 합작투자를 한 경우에는 향후 사업여건의 변화로 단독투자로 전환하려면 인도 파트너로부터 "이의가 없다"는 동의서를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동의서 획득에 어려움이 따르고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는데 유의해야 함
- 51% 이상의 지분을 확보한 경우에도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 파트너와의 갈등으로 결정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특히 신속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사안의 경우에도 의사결정 시기 지연이 빈번함
- 부득이하게 인도 파트너와 합작을 할 경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합작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업무상 권한 범위, 이익금 배분과 더불어 불필요하고 사소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꼼꼼히 구체적으로 적어 넣어야 함. 특히 추후 합작 파기에 대비하여 계약 종료 조항과 중재조항도 필히 삽입하여야 함

☒ S전자가 초기에 합작투자로 인해 고통을 받았던 것과 달리 H자동차와 L전자는 초기부터 단독투자로 진출하여 생산가동 시기나 시장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22)]

- S전자는 인도 회사와 51:49의 조인트 벤처 형태로 진출했으나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요구가 늘어나 사업진행에 방해요소로 등장하자 결국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지분 100%를 확보함

☞ ***현지 투자기업의 말(H사)***

" 인도 합작법인을 만들 경우 믿을만한 합작 파트너 선정이 중요한데 적정 파트너 선정이 쉽지 않고, 경영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Y사)***

" 인도 비즈니스는 믿을만한 합작 파트너를 찾고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나 그러한 믿을만한 파트너를 찾기가 쉽지 않으며, 합작하더라도 인도 특유의 비즈니스 문화에 적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22) 인디아코드22, 2006, 김봉훈



〈현대자동차의 인도진출에 따라 다른 협력업체 15개사와 함께 1997년 동반 진출한 에스엘루막스(SL Lumax)의 첸나이 공장. 에스엘루막스는 인도 자동차용 램프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는 인도 루막스사와 합작으로 진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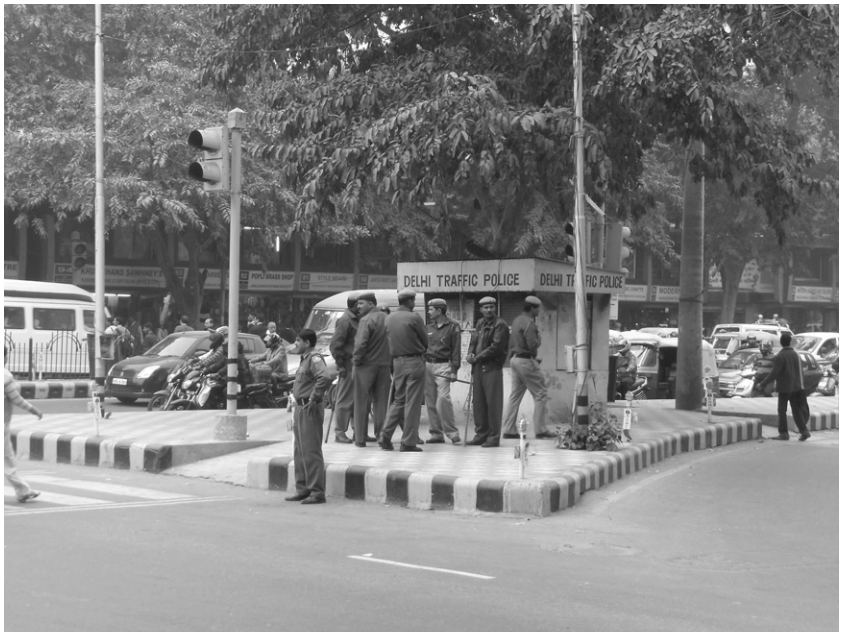
4. 규제와 인(人)의 장벽이 존재함을 숙지하라

- 과거 허가왕국(Licence Raj)이라는 칭호를 얻을 정도로 관의 간섭이 심했던 것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각종 인 · 허가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원활한 생산 및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함. 이는 대부분 처리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음

- 현지 마케팅, 對 관공서 업무 및 노동자 문제의 관리를 위해 현지 직원을 채용하여 최고 의사결정에는 참여시키지 않더라도 과감하게 권한을 이양한 후 철저한 원칙에 의거하여 관리 · 감독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바람직함

- 지자체 말단 공무원부터 관련 정부부처에 걸친 무수한 절차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사정에 정통하고, 지역 사회에서 입지가 있는 현지 변호사, 컨설턴트, 회계사 등의 대리인 활용이 필요함

• 특히 현지 진출기업의 영업에 가장 많은 지장을 주는 빈번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일시적·임의적인 조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전문 회계사 등의 대리인 활용이 필수적임



〈뭄바이 테러사건 발생이후 거리에 경찰 및 군인 숫자가 부쩍 늘었다. 사진은 뉴델리 교통 경찰의 모습〉

5. 치솟는 부동산 임대료를 감안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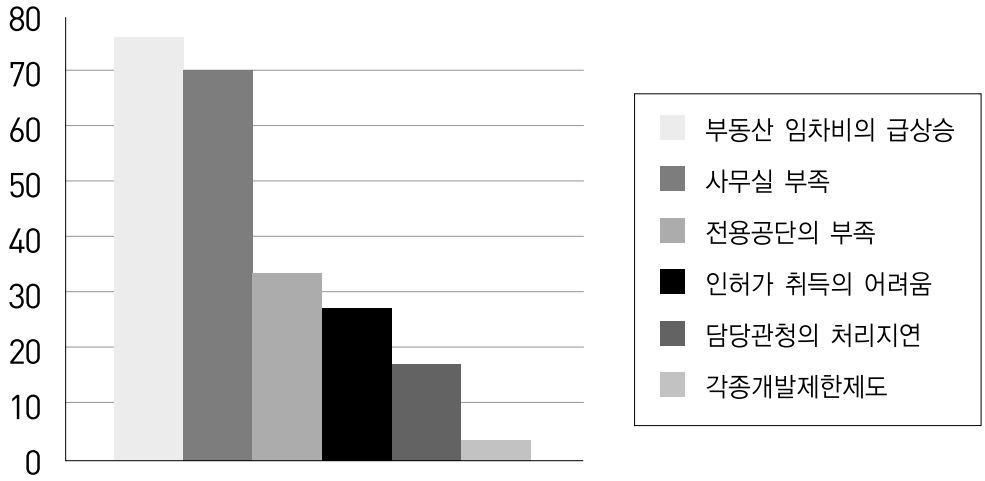
☒ 최근 경제가 성장하면서 델리와 뭄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폭등하여 많은 기업들이 사무실 임대, 공장 부지 확보, 주택 임차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우리 투자기업들은 인도의 투자입지 환경과 관련하여, 전체의 54%가 불만족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37%가 보통이라고 느끼며, 9%가 만족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음. 특히 부동산 임차비의 급상승·사무실의 부족 등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임

• 뉴델리의 경우 주택 임차료가 연간 100% 이상 급등하는 경우도 많으며 130㎡(40평) 주택 월 임차료가 420만원, 칸마켓 33㎡(10평)짜리 상가의 월 임차료 1,400만원, 뭄바이 165㎡(50평)짜리 오피스의 월 임차료는 2,500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상황임[23]

23) 뭄바이의 링킹로드(Lingking Road)가 뉴델리의 칸 마켓을 제치고 인도에서 임대료가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됨. 최근 이 지역 월평균 임대료는 3.3㎡당 14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Hindustan Times, 2008.11.13)

입지환경 관련 애로 사항



* 자료 : KOTRA 뉴델리KBC

- 인도의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곧바로 부동산 가격의 폭등과 직결되고 있는 실정임

☒ 부동산 임대료의 경우 시장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향후에도 수년간은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외국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뉴델리지역과 최근 테러사태에도 불구하고 인도 최대 상업·금융중심지인 뭄바이 지역의 상승세가 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됨

- 뉴델리지역의 경우 2010년 영연방 게임(Commonwealth Games)의 개최를 앞두고 주거지역 내 사무실과 불법 건축물을 대대적으로 폐쇄·철거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어 수급난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됨

주요 지역별 주택시장 임차료 동향

지 역	주택 월 임차료	3개월간 증가율	6개월간 증가율	2년간 증가율
델리 남부 고급	18만루피 ~ 37만루피	0	0	60%
델리 남부 일반	11만루피 ~ 16만루피	0	0	60%
구르가온 고급	11만루피 ~ 18만루피	0	0	100%
구르가온 일반	3만 ~ 7만	0	0	N/A
노이다 고급	5만 ~ 8만5천	0	0	N/A
노이다 일반	1만7천 ~ 2만5천	0	0	N/A
뭄바이 고급	50만루피 ~ 120만루피	0	0	N/A
뭄바이 일반	15만루피 ~ 45만루피	0	0	N/A
첸나이 고급	6만루피 ~ 25만루피	0 ~ 18%	0 ~ 50%	N/A
첸나이 일반	1만 ~ 5만루피	0	0	N/A

* 자료 : Cushman & Wakefield, 2008년 3Q기준, KOTRA 뉴델리KBC 설명회자료에서 재인용

주요 상권별 사무실 임차료 동향

상권명	Sf당 월 임차료	3개월 추이	1년 추이	상권명	Sf당 월 임차료	3개월 추이	1년 추이
Khan Market	1,400	5	15	Karol Bagh	450	-18	1
C.P.	800	0	0	Basant Lok	775	-4	-4
South Extention	1000	-5	9	GK I (M Block)	1000	-7	9

* 자료 : Cushman & Wakefield, 2008년 3Q기준, KOTRA 뉴델리KBC 설명회자료에서 재인용

주요 도시별 사무실 임차료 동향

도시명	지 역	월 임차료/sf	3개월간 증가율	1년간 증가율
델리	CBD - Prime	380	9	20
델리	CBD - Others	240	0	14
델리	SCBD	240	-2	11
델리	South Micromarkets	177	-7	11
구르가온	Commercial	117	-1	4
구르가온	IT/SEZ	71	-7	-14
노이다	Commercial	74	0	10
노이다	IT/SEZ	34	-14	-29
뭄바이	CBD	500	0	25
뭄바이	Worli	400	0	0
뭄바이	Powai	110	0	10
첸나이	CBD- Anna Salai, RK Salai	85	-8	9

* 자료 : Cushman & Wakefield, 2008년 3Q기준, CBD : Central Business District, KOTRA 뉴델리KBC 설명회자료에서 재인용



〈뉴델리와 뭄바이 지역을 중심으로 사무실 및 주택임차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사무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빌딩 신축공사가 시내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6. 인도의 독특한 비즈니스 문화에 익숙해져라

☒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은 반드시 최고 책임자와 협의하고, 합의된 사항은 사소한 것이라도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함. 종업원에서 거래처에 이르기까지 분쟁소지가 있는 것은 사소한 사항부터 문서화해야 함

- 최고책임자와 협의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와 정관 등 문서상의 책임자가 동일한 지 확인해야 추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음
- 인도인의 "No problem"은 "당신의 말을 이해하였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말을 합의된 사항으로 받아들였다가 낭패를 본 한국 기업이 많다는 사실을 유의하여야 함

☒ 행정절차가 복잡다단하고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행정효율도 낮고 각종 음성적인 비용지출도 만만찮다는데 유의해야 함

인도 · 중국 · 한국의 사업 환경 평가

구 분		인도	중국	한국
사업 개시	절차 수	13	13	10
	소요 일수	33	35	17
사업 청산에 필요한 年數		10	1.7	1.5
건축 설계도의 승인 소요 일수		145	28	9

* 자료 : 월드뱅크, Doing Business 2008

☒ 인도는 중국보다 훨씬 법치주의 국가로 일단 계약서를 맺으면 중국에서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효력을 미치고 사법적인 영향력도 강한 것이 현실임

- 그러나 문제는 사법 절차로, 인도에서 사업을 하다 부당한 경우를 당해 인도 사법기관을 통해 처리해야할 경우가 있는데, 법으로 원만하게 처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임. 인도 법정은 소송 사건이 엄청나게 밀려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많아 웬만한 민사소송은 5~10년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함

☒ 인도는 대그룹 계열사라고 하여 신용 있는 회사라고 단정해서는 안되며, 필요시 국제신용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거래선이나 잠재 파트너의 신용조사를 철저히 파악해야 함

- 필요하면 그룹회사라고 하다가도 불리한 경우에는 어느 때라도 그룹과는 무관한 회사라고 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음
- 합작 파트너 신용평가에 있어 Credit Information Bureau(India) 등과 같은 기관도 있지만, 대부분의 인도 신용평가 기관은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없고 신뢰성도 미약하므로, Dun & Bradstreet와 같은 국제신용 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거나, 신용 조사가 어려운 경우 간접적으로 상대 파트너의 고객, 주변인물, 관련 조합 등을 통해 최대한 정보를 수집,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것이 중요함

☒ 2007년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국가별 순위를 보면 인도는 72위를 기록, 2006년 70위보다 두 계단 후퇴함

인도 연도별 부패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구분	2004	2005	2006	2007
순위(부패지수)	90(2.8)	88(2.9)	70(3.3)	72(3.5)

* 자료: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 인도의 경우, 국제적으로 투명하다고 평가 받는 기준이자 OECD 가입 30개국의 평균 지수이기도 한 '7점 대'와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7. 법제도 및 투자정책 변화에 촉각을 세워라

☒ 정권 교체시마다 기업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굵직한 사안이 수시로 발표되고 개정하며, 투자정책 및 기구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등 정책적인 리스크가 크다는 데 유의해야 함

☒ 개발도상국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관련 법제도 및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마찰을 최소화하고,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 인도는 연방제로 지방정부의 권한이 매우 크므로 진출지역 관할 지방정부와의 정책적 사항(State Government) 등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도 진출시 필수조건중의 하나임. 투자대상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주정부의 재정건전도, 외국투자에 대한 호의적 정책 등을 함께 고려하여 투자지역을 결정하는 것이 좋음

⊠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는 지나치게 철저한 민주주의 시스템이 경제성장 및 외국인투자유치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함

• 주민들과 근로자들의 의견이 아주 영향력있게 반영되다 보니 공자 부지 확보나 사업 인허가 등에 있어서도 예기치 못한 장애요인으로 대두되기도 함

– 실제 타타그룹 역시 웨스트벵갈 지역에 투자하기로 한 자동차공장이 지역 주민의 보상을 둘러싼 요구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결국 거액의 손실을 안고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이처럼 민주주의 발전의 산물인 환경, 노동, 생존권 문제 등이 인도에 투자하려고 하는 외국기업의 발목을 잡거나 인도정부의 인프라 구축 지연 등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음



〈환경, 노동, 생존권을 둘러싼 주민의 잦은 시위로 인해 투자를 포기하는 기업도 자주 발생한다. 사진은 2008년 12월 인도 농촌 주민이 뉴델리 시내에서 시위중인 모습〉

8. 공장부지 확보가 가장 큰 걸림돌임을 명심하라

⊠ 넓은 영토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 세계 기업의 투자 유망지역으로 관심이 쏠리면서 일정 수준의 인프라와 생활여건을 갖춘 부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생각보다 매우 어려운 실정임

- 부족한 인프라 시설투자로 전력, 도로, 관개 등이 원활한 입지는 한정되어 있어, 광활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공장 부지는 부족한 형편이며, 그나마 괜찮은 부지들은 이미 외국 및 인도 대기업들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임
- 매입가능지역은 사회간접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은 벽지가 대부분이며, 부족한 인프라 설치 비용도 대부분 개별회사 부담으로 되어 있어 예상치 않은 비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실제 인도에 기 진출한 한국기업에서 공장 이전을 위한 부지 확보를 위해 뒷돈을 주며 어렵게 확보한 사례가 있음
- 인도는 사회주의 정책의 영향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국 · 공유지로 되어 있어 외국인이 구입 가능한 공장용지의 구입은 제한적이며, 이밖에 농민의 토지보상금을 둘러싼 갈등과 정치권 및 행정기관의 부패 등도 부지확보를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임

☞ ***현지 투자기업의 말(L사)***

"공장부지 매입에 많은 애로가 있다. 농지를 구입하여 공업용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적으로 지연되어 많은 고충을 겪었다. 인도는 농지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업용지 전환에 평균 5~6년이 소요된다. 인도는 넓고 땅도 많으나 실제 공장부지 확보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Y사)***

"뿌네 지역에 주정부 개발공사와 토지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막상 등기를 하려고 하니 명의이전이 안된다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다. 결국 이를 포기하고 벵갈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예정이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L사)***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부지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기본적으로 땅이 없는 상황이며, 토지에 대한 등기제도가 확립되지 않아 실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등 문화적 차이와 제도미비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설립한 바 있는 일본의 사례를 준용하여 한국기업의 인도 투자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공장부지 확보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국기업 전용공단' 또는 '주요 업종별 클러스터'의 조성이 시급함

- 최근 한국토지공사가 구자라트 주정부와 한국기업 전용공단(1,100만㎡) 조성을 위한 MOU를 체결했으나, 공단 조성에 막대한 자금과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과 함께, 주정부의 재정문제 및 개발의지,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단기적으로 우선 한-인도 기업간 상호 보완성이 높고 협력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한 IT, 자동차부품, 기계 등 전문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음
- 일본기업 전용공단의 경우 부지매입에서부터 공단개발과 관련된 비용일체를 일본이 부담하였으나 이러한 방식은 한국입장과 다소 맞지 않음

☞ ***현지 투자기업의 말(S사)***

"임대공장으로 인도에 진출했는데, 이유는 부지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의약품 허가등록이 까다로워 일부 의약품만 허가를 받고 나머지 제품은 허가를 신청한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허가가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회사에 이웃한 BAXTER 기업도 5년째 뉴델리 공장에 입주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일본기업 전용공단을 지어 다수의 일본기업이 입주하고 있느니 만큼 한국도 한국기업 전용공단이 생겼으면 좋겠다."



〈현재 인도에서는 외국기업이 입주 가능한 공단도 부족하고 공장부지 확보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사진은 일본기업 전용공단에 입주한 혼다 공장〉

9. 구인난 및 인건비 상승에 유념하라

⊠ 세계 최대 인구대국인 중국이 급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동가능 절대인구수가 조만간 마이너스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세계 2위 인구를 자랑하는 인도는 앞으로 노동가능 인구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인도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2001년 인구센서스에서 0~14세 인구가 전체의 35.6%, 15~59세가 5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은 2006년 상기 비율이 32.5%, 60.4%, 2011년 29.7%, 62.5%로 각각 변화되어 영유아 인구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노동가능 인구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함

⊠ 전체적인 노동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최근 2~3년간 전문직 및 기술직 등 전문 인력 구인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 역시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임

- 인도 진출 한국투자기업들은 노무환경에 대한 평가에서 불만족 및 매우 불만족이 60%, 보통 36%, 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4%에 불과함. 노무관련 애로사항은 높은 이직률, 높은 임금상승률, 노동자의 적극성 부족, 노동관련 법률의 경직성, 노동자의 낮은 교육수준, 노조의 집단행동 순으로 나타남[24)]

24) 인도진출 82개 한국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08.5, KOTRA

- 이코노믹타임즈는 인건비 상승률이 2006년 14.4%에 이어 2007년 14.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
- 2007년 주요 산업분야별 인건비 상승률은 유통분야 25%, 금융분야 16.5%, IT분야 15~20%,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 분야 12~18%에 달할 것으로 예측함[25]

☒ 인프라, 금융, 전시 및 IT 등 산업에 종사하는 직원 급여는 연속 5년 동안 연평균 15~20%의 속도로 크게 상승하여 경쟁력 약화 요인으로 작용함

- 연간 인금상승률은 2002년 9.7%, 2003년 11.5%, 2004년 13.7%, 2005년 14.1%, 2006년 14.4%, 2007년 15.1%, 2008년 15.2%로 나타남[26]

☒ 전문 인력의 이직률도 높아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어려우며, 해고도 어려워 노동경직성이 높다는데 유의해야 함

- 사회주의 경제시스템을 운영한 전통으로 노동자 권익을 과다하게 보호한 노동법 체계 등이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 실제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의 경우 노동자(정규직)의 정리해고나 사업체 폐업시 정부의 사전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갖가지 조항을 통해 퇴직금, 상여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 해고 시에도 1~3개월전 사전 통지를 해야 하는 등 노동 유연성이 부족한 편임

☒ 아울러 인도의 노동관련 법규는 종류도 많고 내용도 복잡하고 규제가 많다는데 유의해야 함

- 주요 노동관련 법규는 최저임금법, 연금법, 퇴직금법, 노동보험법, 임금지급법, 보너스지급법 등이 있음. 인도고용주조직(All India Organization of Employers)은 과도한 노동관련 법규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경영과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된다며 이의 완화를 촉구하기도 함

25) 인도 시사주간지 The Week, 인도투자실무가이드(2007, KOTRA)에서 재인용
26) 인도기업 인건비는 금년 1분기에 이미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현지 투자기업의 말(L사)***

"직장에 대한 충성심이 약하다 보니 보다 나은 조건을 따라 이직하는 비율이 높으며, 인도 특유의 문화적 특성으로 인해 수평적인 인사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S사)***

"결근율이 10% 이상에 달할 정도이며,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생산성지표 및 근무태도 등을 반영한 성과 보상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해도 근로자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일률적인 임금상승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부터 노무관리 및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크게 문제시 될 것으로 보인다. 돈에 대한 개념이 중국과는 다르다. 중국은 특근 · 야근을 마다하지 않으나 인도는 야근이나 휴일근무를 싫어한다. 인도인들은 돈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현지 인력과의 의사소통, 언어장벽을 해소하면서 관리직과의 의식을 공유할 수 있는 중간계층 인력 고용도 쉽지 않다."

☞ ***현지 투자기업의 말(S사)***

"인도는 적정 가격으로 쓸만한 인재를 구하기가 어려우며, 이직률이 높다. 인건비 역시 초기에는 저렴하나 '상후하박' 식 임금구조로 인해 지위가 높아질수록 인건비가 급증하므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힘들다고 할 수 있다."



〈우수한 고급 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인도의 강점이지만 실제 이러한 고급 인력을 구하기란 쉽지 않다. 사진은 첸나이 소재 안나 대학교 건물〉

10. 투자진출 목적을 명확히 하라

☒ 인도시장에 대한 투자진출에 있어 풍부한 인력, 저렴한 요소비용을 감안한 제3국 임가공 수출을 위한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절대 금물임

- 인도투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급속도로 확대되는 중산층을 겨냥한 내수시장 공략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진출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함
- 최근 중국 투자환경이 인건비 및 지가 급등, 인력난, 토지 부족, 위안화 절상, 세제우대혜택 철폐, 노동 및 환경기준 강화 등으로 크게 악화되면서 노동집약 산업을 중국에서 철수하여 인도로 이전하려는 방식은 절대 금물임
- 인도의 중산층은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조악하고 질이 낮은 인도산 제품에 만족해야 했고, 2000년대 중반까지는 중국산 제품에 노출이 많이 되었지만, 현재 이들 소비계층은 현대적 소비의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 단계로 갈수록 품질과 서비스를 중시하는 선진국형 소비자로 변모하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함



〈사리(인도 정통의상)가 현대적인 여성복으로 본격 대체될 때 거대한 여성의류 시장이 창출될 것이다. 사진은 사리를 입은 어머니와 치마를 입은 딸의 모습〉

⊠ 인도를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보고 진출해서는 안 됨. 인도가 하나의 나라이긴 하지만 지방마다 풍습과 기호가 천차만별이고, 소득 수준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시장을 쪼개어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세분화 전략이 필요함

- 광활한 국토, 높은 부동산 가격과 운송 인프라 미비, 현지 시장 친숙성 부족 등을 감안할 때 일거에 전국 유통망을 갖추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지역별 · 거점별 유력 에이전트를 선정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 뉴델리, 뭄바이, 첸나이, 콜커타 등 4대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된 주요 상권별로 지배적 상인조직과 특성이 구분되므로 초기 단계에는 특정 지역이나 상권에 집중하고, 성과에 따라 에이전트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에이전트는 해당 부문에서의 평판과 입지, 사업 및 마케팅 능력, 해당 업종에서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해야 함

⊠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시장을 개방했지만 실제 외국기업이 내수시장을 공략하는데 있어서는 각종 규제의 장벽도 많고 외국기업과의 경쟁도 치열하여 공략이 쉽지 않았음. 그러나 인도 시장은 상대적으로 외국기업 진출이 많지 않아 이들과의 경쟁이 덜 치열하여 시장진입과 내수시장 공략이 쉽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문헌〉

1. 인도투자실무가이드, 2007, KOTRA
2. 인도 진출기업을 위한 세무안내, 2008.10, 국세청
3. 인디아코드 22, 2006, 김봉훈
4. 인도, 21세기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2000, 남상욱
5. 주인도 대사관 통상투자진흥회의 설명회 자료, 2008.12
6. 친디아저널 각호, POSRI
7. 나마스떼 인디아, 2008.12, 재인도 한인회

| 작 성 자 |
홍 창 표 차장(KOTRA 파견)

Global Investment Report 제 09-1 호

인도 투자진출 유의사항 10계명

발 행 일 : 2009년 1월
발행·편집인 : 지식경제부 임성영 과장
발 행 처 : 지식경제부 해외진출기업지원단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KOTRA 1층
TEL. 02)3460-7470
인 쇄 처 : 화신문화(주)
TEL. 02)2277-0624

Copyright © 2008 by 지식경제부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지식경제부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